

## 변영만의 「傷李婦安氏」에 나타난 근대적 비극과 문학적 진정성

김진균\*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근대 도시의 산책과 진정성 |
| II. 근대 노동 빈민의 비극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卞榮晩이 식민지 초기 망명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를 유력하고 식민지 조선에 돌아와 활발한 문필 활동을 개시했던 무렵인 1924년의 저작인 「傷李婦安氏」를 중심으로 변영만의 문학적 진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시 변두리 빈민인 안씨부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 사태와, 그런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안팎을 어슬렁거리는 변영만의 산책길이 서로 교직되어 「상이부안씨」의 주제적 지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대 도시의 화려함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애의 광경에서부터 도시 변두리의 황량한 무덤과 빈민촌의 참상으로 이어지는 변영만의 산책길은 근대 도시에 대한 낯선 거리감을 형성한다. 도시 변두리 빈민 노동자 안씨부인의 참극은 근대 도시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변영만은 근대에 대한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문학적 진정성의 핵심은 식민지시기 동시대의 처참한 삶들을 외면하

지 않는 것으로서, 변영만은 이 작품을 통해 근대 노동 빈민의 비극적 삶과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것을 통해 지극한 슬픔을 느끼는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근대적 사태를 전근대적 한문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창출하는 문학적 진정성은 전근대 한문학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며 동시대 국문 문학 작품에서도 유사한 경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주제어】 변영만, 근대한문학, 「상이부안씨」, 노동 계급, 산책, 진정성

### I. 머리말

卞榮晩(1889-1954)은 일제강점기 한문학 문장대가로 꼽히며 한문학의 역사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특출한 존재다. 그간 변영만에 관해 어느 정도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약간의 연구 성과도 있었지만 대개 변영만의 사상적 혹은 문학적 지향에 주목한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변영만은 이전의 한문학이 보여주지 못했던 자유분방한 사유로 문학과 사상을 펼치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근대와 전근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 즉 동서고금을 회통시키겠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sup> 변영만은 근대적 사유에 깊은 영향을 받았 으면서도, 여전히 전근대적 한문학에 자신의 주력을 쏟아 부었다. 근대적 구도 하에 한문학의 좌표를 놓는다면 전근대-동양이 될 터인데, 변영만은 여기에 근대-서양의 가치를 결합시켜 한문학을 일신하였던 것이다. 변영만의 이러한 지향은 근대한문학의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기반으로 인정해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관련 연구의 주된 경향은 변영만의 지향을 이해하는 데 놓였다.

그의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적 평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

1)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 사상」,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지지 않은 듯하다.<sup>2)</sup> 식민지 초기 망명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를 유력하고 식민지 조선에 돌아와 활발한 문필 활동을 개시했던 1920년대 초반의 저작 「傷李婦安氏」를 분석하여, 변영만이 근대 한문 산문에서 구축한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변영만은 이 한문 산문을 통해 근대적 사태를 서술하고 있다. 1924년에 저작한 「상이부안씨」는 근대 노동계급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암울한 비극의 근대적 사태를 대하는 변영만의 감수성은 전근대 한문학에서 볼 수 없던 것이며 근대 국문 문학 작품에서도 유사한 경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근대적 사태를 전근대적 문체에 담으면서, 문학적 감수성은 근대와 전근대를 넘나드는 진정성의 경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 II. 근대 노동 빈민의 비극

「상이부안씨」는 이씨 집안에 시집 온 안씨부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반부는 근대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변영만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야 안씨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안씨부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조선왕조 종친 德泉君의 후예인 李殷福의 처 廣州安氏는 甲子年 2월 모일에 오랜 병이 낫지 않아 서울 서대문 밖 아현동 굴레방다리 그의 남편 집에서 숨

2) 변영만의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따로 다룬 학술논문은 김동석, 「변영만이 본 신채호-「단재전」을 통하여」, 『한문학회』 10, 우리한문학회, 2004.; 김진균,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변영만의 한문산문에 드러난 근대적 사유와 그 맥락: 「여시관」 「인성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1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정도이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상이부안씨」는 김진균의 학위논문, 「변영만의 비판적 근대정신과 문예추구」(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4.)에서 산책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바 있었는데, 전후 맥락과 노동 빈민의 비극이라는 점은 드러내지 못하였다. 해당 선행 연구에 힘입어 논의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을 거두었다. 나이는 스물여섯으로 네 살 된 첫째이 아이 하나를 남겼다. 후에 殉死한 것이다. 이미 병으로 죽었다고 하고서 어찌 또한 순사라고 말하는가?<sup>3)</sup>

「상이부안씨」에는 갑자년(1924) 2월에 지은 것이라는 부기가 달려 있는데, 안씨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충격적 슬픔이 채 사그라지기 전에 바로 지은 것이 분명하다. 변영만은 그녀의 죽음을 병사인 동시에 순사라고 하였다. 殉死는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가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病死는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병사와 순사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변영만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병사이면서 순사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孝를 위한 순사라고 하였다. 개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를 안씨부인의 죽음에 적용하면서 위 인용문 마지막 문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병사이면서 순사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씨부인을 죽음으로 내몬 병은 이유 없이 닥친 것이 아니라 안씨부인이 효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감수한 것임을 이 대목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다. 효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안씨부인의 비극일 것이다.

이어서 우선 안씨부인의 시집 상황을 묘사한다. 안씨부인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가세가 오랫동안 영락하여 의지할 곳도 없는 형편이었고, 이런 형편에서 자란 안씨부인의 남편 이은복은 배울 기회를 놓쳐 일자리 얻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자주 해직되었다고 한다.<sup>4)</sup> 위

3) 卞榮晚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傷李婦安氏」, 『변영만전집』 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p.236, “有韓宗親德泉君後人李殷福之妻 廣州安氏, 以甲子二月某日, 坐久病不治, 死于京西門外阿峴里勒放橋之其夫家. 年止二十六, 遺一四歲乳子, 殉於孝也. 既云病死, 曷又曰殉也.”(번역은 『변영만전집』 상, pp.435-438.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앞으로 해당 작품은 출처 표기를 생략한다.)

4) “夫人既喪所天, 家勢亦久中落, 洗然無所於資活, 而殷福又失學, 艱於居業, 居亦累黜焉.”

인용문에서 이은복은 덕천군의 후예라고 하였다. 왕족의 후예가 아니라 고는 못하겠지만, 덕천군이 조선왕조 2대 임금 정종의 아들이니 까마득히 먼 조상이 왕족이었던 것이다. 가까운 조상의 형편이 어떤지는 서술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남편 이은복이 물려받은 형편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완전히 몰락한 가문의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 받기는 어려웠을 터, 역시 이은복은 배울 기회를 놓쳤다[失學]. 근대 사회의 노동 시장에 스스로를 내놓아야 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주요 수단인 교육이 결핍된 것이다. 교육의 결핍은 고용 안정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게다가 이은복이 사는 곳은 아현동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는 소농들을 파산시켰고, 파산된 소농들은 소작농의 상태로 전락하거나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 변두리로 유입되어 도시 빈민을 형성하는데, 이은복은 바로 그곳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었다. 가령 이은복이 농촌에 거주했다면 궁핍한 소작농의 지위라도 얻을 기회가 있었을 터였겠지만, 식민지 시기 서울이라는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한 도시 빈민이 득시글거리는 속에서 바로 한 사람의 도시 빈민으로서 구할 수 있는 생업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은복에게는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자주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도시 빈민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별다른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안씨가 이것을 보고, 드디어 분연히 고무공장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품팔이를 하였다. 고무는 서양말로 나무 津液을 달여 만든 물건이다. 공장의 일꾼은 대부분 부녀자를 채용하였는데, 그 일로 말하자면 너무도 힘들어 견딜 수 없다고들 한다.<sup>5)</sup>

안씨부인은 남편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고무공장 노

5) “安氏見此，遂奮然備其身於膏臘工廠者，膏臘西語，樹脂所煎成之物也。廠備多取婦女，言其事則至苦不堪爲云。”

동자가 된다. 위 인용문에서 변영만도 언급하고 있듯이 식민지시기 고무공장에서는 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었다.<sup>6)</sup> 조선의 고무공장이란 곳이 고무를 생산하는 곳이기보다는 주로 고무를 가공하여 신발 등의 생필품을 만드는 곳이라서 단순 노동집약형 노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고무 원료를 섞는 배합과 형태를 만드는 성형 등 기계 숙련 노동이 필요한 부문은 주로 소수의 남성이 맡고, 도구를 사용하여 붙이거나 손으로 깎는 수작업 부문을 다수의 여성이 맡았다. 임금도 처우도 남성보다 더욱 열악하였다.<sup>7)</sup>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제와 강압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대상인 때문이기도 했다. 식민지시기 조선인 노동자의 상태도 열악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데,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던 것이다.<sup>8)</sup>

공장이라고는 하나 두세 군데 대공장을 제외하면 거의가 이름 그대로 오두막 집이었다.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직공의 대다수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한두 개의 공장을 제외하면 아무런 교육시설도 없었다.…… 이들 여공의 가정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극빈하여 일급 30전으로 7~8명을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9)</sup>

1920년대 공장 여성 노동자의 증언을 일본인이 기록한 것인데, 마침 서부 경성의 어느 공장 노동자의 구술이다. 아현동도 서부 경성의 외곽인데 꼭 지역이 같아서는 아니더라도, 안씨부인의 공장 노동도 대략 비슷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20~30전

6)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 이화사학연구소, 2003, p.365.

7) 이송희, 위의 논문, p.369.

8)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pp.58-59.

9) 大山超洋, 「西部京城に於ける工場労働者の調査-痛しき女工の哀話」, 『朝鮮時論』 1927년 4월호, p.20.(김경일, 위의 책, p.59.에서 재인용).

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공장주와 관리자들은 그마저 한 달이 넘도록 품삯을 연체하며 구타를 예사로 자행하였다.<sup>10)</sup> 안씨부인의 남편이 남성 노동자로서 공장에 취업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하더라도 그 처지는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터인데, 남편이 자주 해고당하는 상황에서 안씨부인이 여성 노동자로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으니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상태를 본다면 극빈의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식민지시기 일반적인 여성 노동자로서의 열악한 조건을 넘어, 고무공장 노동자로서의 고충은 한층 더했던 듯하다. “고무공장 노동자들은 음침하고 냄새나는 공장 속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고무 냄새, 기름 냄새, 가스 냄새, 코 입김이 한데 뒤범벅된 채 공장 감독의 눈총을 받아야 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은커녕 공장주나 감독의 위협적 기만과 물리적 성적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감독관에 의해 폭언, 폭행, 벌금, 해고의 위협 등을 받았다.”<sup>11)</sup> 1923년 고무 여직공 파업 과정에서 고무 여직공들은 “남편 없이 시부모와 아이들을 데리고 종일 화덕 같은 공장에서 피가 나도록 일을 해박야 생활에 부족한” 참상을 폭로하고 “횡포한 공장 주인에 의한 희생과 기만”을 고발하기도 했다.<sup>12)</sup> 안씨부인의 현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변영만이 앞의 인용문에서 “그 일로 말하자면 너무도 힘들어 견딜 수 없다고들 한다.”고 간략히 적은 상황은 실상 이처럼 너무나 열악한 식민지시기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 안씨부인의 현실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씨는 이미 분연히 이곳에 몸을 맡겨 얼마 되지 않은 소득으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열고 주리지 않게 한 것이 이미 여러 달이었다. 그러나 몸이 본래 유약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도리어 그만두지 않고 더욱 심

10) 『동아일보』 1924년 4월 22일자; 12월 12일자(김경일, 앞의 책, p.60. 재참조).

11) 이승희, 앞의 논문, p.373.

12) 『조선일보』 1923년 1월 4일자(김경일, 위의 책, p.72. 재참조).

장을 토하고 창자를 쥐어짜며 일하여 마침내 병들게 되었다. 또한 좋은 약을 얻어 치료하지도 못하니, 점점 병이 깊어져서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 순절이라 말해도 마땅할 것이다.<sup>13)</sup>

안씨부인은 그 얼마 되지 않은 소득으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열고 주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열어 죽고 굶어 죽지 않을 수준만 겨우 유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 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뒤집어보면 겨우 몇 달 만에 병이 발생한 것이다. 병약하여 본디 공장 노동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도 시어머니를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심장을 토해내고 창자를 쥐어짜며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그녀는 결국 병이 들게 되었다. 극단적인 강도의 노동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성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병이 들었어도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노동 수입이 있던 때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에 여력이 부족했는데, 병으로 수입이 없게 된 때에 무슨 여력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근대 의료기관은 고액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곳이라서 특권 계층이나 무료 실험 환자나 이용하던 곳이었다.<sup>14)</sup>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씨부인의 죽음은 발병 단계에서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발병 또한 유독한 환경에서 극단적인 강도의 감당 못할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예견의 두 단계를 이어붙인다면 잔약한 여성이 근대 사회의 노동자로 나선 것에서부터 죽음은 예견된 것인데, 그 길을 차마 돌아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끼니를 잊지 못하는 형편의 가정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를 몇 달 이어보려고 죽음까지 감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변영만은 그것을 “시어머니 봉양”으로 提喻하고 있다. 시어머

13) “安氏既奮然投身於此，用其所獲之無厚，以養其寡姑，得無至於凍餓，亦既累月矣。而體本緩弱，不任其役，顧不止，益嘔心摧腸而爲之，竟致瘵癆，而又莫得善藥以間之，則浸以綿歷，而遂終不免於折矣。謂之殉，宜也。”

14) 황상익, 『근대 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p.201., p.740.

니 봉양을 가족 생계에 대한 제유법으로 사용한 것인데, 단지 제유법이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 시장에 뛰어들 행위의 의미를 전적으로 시어머니 봉양 때문인 것으로 귀착시켰다. 시어머니 봉양이라는 가치 즉 효의 가치를 내세워 안씨부인의 죽음을 “효에 대한 순사”로 승화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변영만으로서의 안씨부인의 죽음을 가장 고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치가 “효”라고 여겼을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것은 변영만이 갖고 있던 전근대적 윤리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시어머니는 자식에게 근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낼 여력이 없었고, 배울 기회를 놓친 그 아들은 근대 사회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그 아들에게 시집 온 여성은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임금 노동 시장에 품삯을 받으러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식민지하에서 조선인 여성 노동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였다. 더욱 유독한 환경에서의 노동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 안씨부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 죽게 되었으니 병사요, 병사에 이르는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였으니 순사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인 에피소드가 심상치 않다.

막 그녀가 눈을 감으려고 할 때 그의 젓먹이 아이가 판 방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 일어나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나지막이 한숨 쉬듯 “울 엄마 좋은 옷을 입고 어디가세요?”라 말했다. 아이는 또한 오래도록 말을 잘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어머니를 의지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 이상하다고 하겠다.<sup>15)</sup>

안씨부인이 남기고 간 네 살 된 젓먹이 아이는, 오래도록 말을 잘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의지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안씨부인이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하는 동안 집에 남겨져 있었을 것이므로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의지하거나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오래도록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된 것도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모국어 습득할 환경에 노출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습적인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불행했다고 할 것인데, 이제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극소의 임금을 벌어들여 오던 어머니가 영원히 부재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 이 아이의 미래는 더욱 불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어머니의 죽음의 순간에 이 아이는 허공에 대고 “울 엄마 좋은 옷 입고 어디 가세요?”라는 말을 한다. 충분히 불행하던 시간과 더욱 불행할 시간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을 독자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문장이 된 것이다. 짐작건대 죽음의 순간까지 안씨부인은 좋은 옷을 입었을 리가 없다. 그녀의 처참한 삶처럼 그녀의 옷도 남루했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차라리 처참한 삶과 고통스런 병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아이의 이 발언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으로 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도시 변두리 노동 빈민의 삶에서 병사 혹은 순사의 순간은, 그 삶을 이어받을 아이의 눈에 오히려 차려입고 잔치에 가는 인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아이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담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변영만은 이 비극적 상황을 담담한 白描로 묘사한 것이다.

### Ⅲ. 근대 도시의 산책과 진정성

시어머니의 불행이 안씨부인의 비극을 만들고 그 아이의 참담을 예견하는 서사를 후반부에 배치한 이 작품의 전반부는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변영만 자신을 묘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그 어슬렁거림은 散策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漫步라고 할 수도 있겠다.

15) “方其瞑時，其乳兒別室而寢，忽驚起望空，而若微喟者曰：“吾母衣善衣，何適矣。”兒則又久而不善言語，且不依戀其母，見謂者，亦可異矣。”

나는 평소 부질없는 한가로운 걸음을 좋아하여, 얽매이는 일이 없다면 왕왕 홀로 스스로 문을 나서 거리를 뚫고 마을을 헤치며 아득히 목적지도 없이 오직 발길에 내맡겼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은 번번이 기쁘고 즐거우며 환하고 떠들썩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 대개 성문 밖 교외 자락의 황폐한 무덤이 옹기종기 있고 오래된 백양나무가 쓸쓸한 사이와 같은 곳에 반드시 매양 이른 것은 아니었으나, 또한 도시 끝 산모퉁이의 곤궁한 집 거지의 소굴, 그 모습이 지극히 처참하여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내가 비록 일찍이 반드시 이런 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길이 이런 곳으로 가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을 보면, 이미 벌써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 마음은 나 또한 그 어찌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다.<sup>16)</sup>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하나하나 묘사하는 방식은 아니다. 백묘의 수법으로 꺾직한 인상만을 전해주고 있다. 그 꺾직한 인상이 참상의 현장을 향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의 도시 거리를 정처 없이 지나 교외의 처참하여 차마 눈길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변영만이 느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근대적 도시가 형성된 이후 도시의 문필가들은 즐겨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도심을 가로지르지만 도시의 경계까지 나서지는 않았던 이들 시인 소설가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변영만의 발걸음은 성 밖, 교외자락의 무덤이나 극빈의 한계에 있는 거지소굴을 향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 문필가들의 일반적인 산책이 도시의 경계 안 거리의 광경 속에서 마주치는 근대성의 상징물들을 통해 사유를 전개해 나갔다면<sup>17)</sup> 변영만의 산책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미 죽은 자들과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피폐한 삶을 사는 자들의 영역을 배회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변영만은 이 시기 근대 국문

16) “余雅喜滯漫之步，苟無事絆，往往獨自出門，穿巷披闔，茫無方向，惟足是聽，而及其所終，輒不在權愉煖熱之區。蓋如城表郊裔荒塚纍纍古楊蕭蕭之間，即未必每至，而亦不外乎市末山隅窮屋巧窟，為狀至慘沮，不堪萬日之境，而見吾雖未嘗決意必臨若地，而其隱望途之出此也，則似已無可如何矣。是心也，吾亦不自知其何心焉。”

17) 손광식, 「박태원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19-24.

문학 작품에서 도시를 산책하는 롬펜에 가까운 문필가들의 양상을 익히 보았을 것이다. 그들의 산책과 다른 의미의 산책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가 “기쁘고 즐거우며 환하고 떠들썩한” 도시는 스쳐 지나고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여 눈길을 주는 곳은 교외의 황폐한 무덤가가 아니면 “비참하여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삶의 모습들이다. 죽음 혹은 죽음에 인접한 삶이 늘상 변영만의 산책이 도달하는 귀착점인 것이다.

비슷한 시기 산책을 다룬 「뽕박」(현상윤, 1917), 「슬픈 모순」(양건식, 1918) 등의 소설들은 주인공들의 “우울한 배회”에 초점을 맞추고, “고뇌와 번민으로 방황하지만 주체의 의식이 각성과 초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아와 세계의 간극의 둘레를 되풀이 맴도는” 주인공들의 “고민뽕”인 산책을 다루고 있었다.<sup>18)</sup>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산책이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러하기에 이 소설들은 산책을 통해 도시에 대한 혐오와 매혹이 착종하면서 조숙한 모더니티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실패조로 결말 맺고 만다.<sup>19)</sup> 이들의 산책은 도시의 경계 안에서 도시와 자신의 존재를 대조시켜 그 간극을 확인하고 대안 없이 고민만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산책하고 있는 도시에 혐오와 매혹이 착종하면서 이들의 고민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스스로의 벽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로 귀결된다. 그것은 식민지 근대의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능력이 없던 초기 단편작가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는 달리 변영만의 산책은 도시를 벗어나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 죽음 혹은 죽음에 인접한 삶의 모습을 화두로 던지고 나서 다시 시선을 도시의 가로등 밝은 거리로 옮겨오며, 산책의 경로가 다르듯, 차원이 다른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의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위험한 경계까지 유유히 걸어갔던 것이다.

18) 유문선, 「3·1운동을 전후한 문학적 대응」,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민족문화사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p.63.

19) 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p.276.

그렇저런 저물어서 돌아와 지나는 등불 사이에 높은 누각과 넓은 집이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광경과 아름다운 여자와 잘 꾸민 젊은이가 웃고 장난치며 옮겨 기대며 바라보는 모습이 많다. 그러나 나는 눈이 마치 먼 곳을 바라보듯 누각과 집이 어찌해서 무덤과 백양나무와 다르며 아름다운 여자와 잘 꾸민 젊은이가 어찌해서 곤궁한 이나 거지와 다른지 조금도 구별할 수 없었다. 이는 귀신과 사람을 능히 동등시하고 근심과 기쁨을 한가지로 여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이 이와 같다고 할 따름이다.<sup>20)</sup>

대낮에 산책을 나서면서 스쳐 지났던 “기쁘고 즐거우며 환하고 떠들썩한 지역”의 풍경들이, 저녁 무렵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눈길에 들어온다. 그것은 “높은 누각과 넓은 집이 웅장하며 휘황찬란한” 근대 도시의 상징물들이며, “아름다운 여자와 잘 꾸민 사내”가 그 근대 도시 안에서 연애하며 기쁨을 나누는 풍경들이다. 그런데 변영만은 황량한 무덤과 도시 경계 밖에 놓인 빈민의 생활을 목격한 잔상을 남겨서 이 근대적 상징물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애의 풍경에 오버랩 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빈민의 생활상에 대한 연애와 동정의 의식을 서투르게 노출하며 도시 청춘들의 연애장면을 부정과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체제라는 근대질서에 편입되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근대 도시의 상징물들이 화려해질수록 그 그늘에 가려진 소외된 삶은 더 어둡고 비참해지는 법이라고 비판적 지성의 목소리를 토해내는 것도 아니다. 오버랩 된 화면에서 죽음과 죽음에 인접한 비참한 삶이나, 이것과 외면상 전혀 무관할 듯한 화려한 도시의 쾌락적 삶이 동일해서 구별할 수 없다는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거나 기쁨과 슬픔이 다를 바 없다는 불가적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느낌이 그럴 뿐이라고 했다. 그럴 뿐인 느낌이란 무엇인가. 근대 도시의 화려함은 도

20) “既暮而返，所過燈光之中，多層樓廣院雄嚴輝赫之觀，明女姣童笑罵徙倚之狀，而余則目若望羊，一不辨樓院之何以異於塚楊，而明姣者之何以不同於窮丐也。非有能齊鬼人而一愁懼也，感之有如此云爾。”

시 외곽의 처참함과 더불어 모두 근대의 산물이다. 과잉된 풍요와 과잉된 결핍이 모두 근대 시스템의 산물인 것이다. 변영만은 근대 시스템이 낳은 화려함과 빈곤이 모두 불행한 일이라고 한 바 있다.<sup>21)</sup> 불행감의 원인은 처참한 빈곤이겠는데, 결과는 화려한 풍요에도 이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태도가 된다. 근대가 빚어내는 양상 전체가 성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느낌이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돌아와서 방 한 곳에 누웠는데, 눈물 기운을 눈에서 그치게 할 수 없었으나 또한 위로되고 만족한 느낌을 이길 수 없었으니, 대개 이번 걸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깊이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집의 안씨부인의 죽음과 같은 경우 나의 슬픔을 감발시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대개 또한 이런 종류가 아니겠는가?<sup>22)</sup>

근대적 도시를 낫설어하면서도 그 도시의 경계는 벗어나지 않고 근대적 문인의 감수성을 구축하던 초기 소설 주인공들의 산책길과는 달리, 변영만의 산책길은 근대적 도시의 경계선을 넘어 실존적 죽음과 식민지 근대 변두리 빈민촌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깨달음과 감동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변영만의 산책은 도심의 화려함과 변두리 빈민촌의 암울함이 하나의 길로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근대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것이 변영만의 근대 도시 산책 방법이었다. 이 대목에 이어서 실상 이 글의 본론이라고 할 安氏婦人의 고단한 삶과 처참한 죽음을 짚막하게 그리고 있다. 안씨부인의 고단한 삶은 근대 도시 빈민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순간 처참한 죽음이 예견되는 것이었다. 밝은 등불과 높은 건물 사이의 휘황찬란한 풍경도 근대 도시의 산물이며, 아름다운 여성과 잘 꾸민 남성이 서로 몸을 부딪으며 농담하는 광경도 근대 도시에 속하는 것이며, 변두리의 공동묘지와 거지 소굴과

21) 「京城의 今昔; 獨甲伊打令」, 『동광』 37호, 1932. 9.

22) “歸臥一室之中，淚氣不能去眼，而亦不勝慰滿之意焉。蓋深自信此行爲若不虛然也。如李婦安氏之死，有以發余之哀，無可與比，豈亦此之類也耶。”

같은 빈민촌도 근대 도시에 속하는 것이다. 변영만에게는 이것이 모두 어우러져 하나의 슬픈 근대 도시의 상을 빚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슬픔을 확인하는데, 왜 위안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가. 슬픔의 감정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헛되지 않은 슬픔이란 무엇인가.

변영만은 세상과 함께하는 가치의 진정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인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고 하여 성인처럼 떠받들고 있던 인도의 타고르에 대해, 변영만은 아무리 읽어도 유익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동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타고르옹은 참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다니며 발에 먼지를 묻히지 않는 자라 할 것이다. 눈으로는 점령자 영국의 채찍질 아래 신음하는 동포들을 보면서도 좋은 벼슬자리에 얽매어서 읍조림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 혼탁한 시대에 이름을 날리며 사방의 나라를 관광하면서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니며 명예가 온 세상에 미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있다. 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지니 무엇을 더 논하겠는가!<sup>23)</sup>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던 타고르에 대해 변영만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타고르가 변영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꺾박받는 동족을 제쳐두고 압제자인 영국의 벼슬을 받고 유유히 하늘을 날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명예나 구하는, 진실성이 부족한 인간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sup>24)</sup> 타고르는 인도인이기 전에 귀족이었다. 세계와 진정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귀족의 성체 안에서 고귀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제국주의 유럽이 아시아에서 발견한 유럽의 귀족주의와 상통하는 정신이었던 것이다. 귀족주의는 진정성

23) 卞榮晚, 「題陋古婁集後」, 『변영만전집』 중, p.95, “而冷然御風而行, 不塵其足者矣, 信僊僊然者矣. 而眼視同胞之呻吟於英寇極楚之下, 而好爵自糜, 不廢吟咏, 策名濁季, 覽光四國, 騰舉翺翔, 延譽八裔, 而恬無所用耻焉. 彼何人哉? 其無誠也.”

24) 김진균, 「근대한국문학의 진정성 시론」, 『한문고전연구』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p.218.

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진정성이란 바로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동족의 삶까지도 깊이 있게 느낀 대목에서 획득되는 것이며, 문학적 진정성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한 세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변영만이 말하는 진정성은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공명하는 것이다. 변영만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동시대인의 고통에 시선을 외면하지 않은 것으로 슬픔을 느끼고, 그것으로 헛되지 않았음을 감지하며, 슬픔을 통해 위안과 만족을 얻은 것이다.

####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 「상이부안씨」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단락은 근대 도시의 안팎을 산책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락은 안씨부인의 비극을 서술하는 것이다. 첫 단락에서 변영만은 근대도시의 화려함과 도시 변두리의 참상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면서 근대적 사태에 대한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변영만은 안씨부인의 비극을 통해 근대 노동 빈민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전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단락은 변영만의 문학적 지향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는 근대의 시대에 전근대적 문제로 전개되는 근대한국문학의 중심인물이기도 한데, 그의 문학적 지향은 근대적 가치만을 추수하지도 전근대적 가치에 매몰되지도 않는 길을 향하고 있었다.

한문은 중세적 생활양식과 중세적 이념을 담아 그것을 중세적 미학으로 관철시키는 도구였다. 근대의 시대에 활동한 변영만은 한문을 근대적 감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실제 그의 창작에서도 근대적 이념과 정서를 담아, 당대의 한문문장가로부터 “奇人 奇文”이라는 평가를 얻었다.<sup>25)</sup> 중세보편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도학문장 도덕관념을 해체하고

25) 曹兢燮, 『巖棲集』, 「答卞榮晚書」.

나서 수립한 문예적 인식 위에서 변영만이 실제로 건설하려 한 문예는 실상 다양한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 두드러진 점은 문학적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념의 기준을 제거하고 나면 이념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은 인간의 참된 진정성을 추구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곳곳에 편만해 있는 외면하고 싶은 慘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 가려져 섬세한 관찰을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다. 결국 타인이 포착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가치의 발견이 변영만의 문학적 진정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가 문학적 진정성을 포착한 것은 그 스스로 중세와 근대의 접점에서 자신만의 산책길을 걸어가며 근대를 관찰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參考 文獻>

- 卞榮晩 지·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변영만전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曹兢燮, 『巖棲集』, 『韓國文集叢刊』 350, 한국고전번역원, 2005.
-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 김동석, 「변영만이 본 신채호 -「단재전」을 통하여」, 『한문학보』 10, 우리한문학회, 2004.
- 김진균, 「변영만의 비판적 근대정신과 문예추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변영만의 한문산문에 드러난 근대적 사유와 그 맥락: 「여시관」 「인성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1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 「근대한문학의 진정성 시론」, 『한문고전연구』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손광식, 「박태원 소설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유문선, 「3·1운동을 전후한 문학적 대응」,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민족문화사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 이화사학연구소, 2003.
-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 사상」,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 황상익, 『근대 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 Abstract

*The Modern calamity and Literary truth in Byeon Youngman's "Sang-yibuansi"*

*/ Kim Jin Kyun\**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Byeon Youngman had exiled and returned from China and the Philippines. Returned to Korea, in 1920's Byeon Youngman, launched a vigorous literary activity. This paper studied the way that Byeon Youngman established the novelty in these days his Sino-Korean literature, "Sang-yibuansi". The core of his novelty was capturing the inner surface of the human in various ways. Not only his novelty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ay of Sino-Korean literature's. But also his novelty was different from the tendency of modern Korean literature's. In the "Sang-yibuansi", Byeon Youngman described a calamity of modern working poor class, and a stroll through the modern city. These two constituent element constructed the sincerity of the modern Sino-Korean Literature. His approaches differentiated himself from those of the enlightenment discourses in modern times that imposed duties on the public as he imposed duties on themselves instead. Byeon Youngman strolled through the modern city, at the same time he walk around the modern times.

**【Key words】** Byeon Youngman, Modern Sino-Korean literature, Stroll, Sang-yibuansi, Laborer class, Capturing the human nature

투고일 : 5월 31일, 심사일 : 6월 10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